

News

5월 은행 주담대 금리 2.69%, 0.04%p ↓ ... 신용대출 0.04%p ↑

연합뉴스

5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 · 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89%로 4월(2.91%)보다 0.02%포인트(p) 하락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2.69%로 한 달 새 0.04%포인트 떨어졌으나 신용대출 금리는 연 3.65%에서 연 3.69%로 0.04%p 올랐다.

'대형 공모주 청약' 앞두고 계좌 유치 나선 은행들

뉴시스

올해 하반기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등 대형 공모주 청약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시중은행들도 공모주 청약계좌 개설 절차를 간편하게 만드는 등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들은 증권연계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식 거래를 위한 자금이 거쳐 가는 계좌

카카오뱅크 · 전북은행도 저축은행과 맞손... '연계대출' 판 커진다

머니S

은행은 대출을 소개해 제휴 수수료를 얻을 수 있고 저축은행은 영업채널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연계대출' 협약이 확대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전북은행과 연계대출 업무협약을 체결. 카카오뱅크는 KB국민카드와 OK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14개 금융사들과 연계대출 제휴를 맺고 있다.

금리 인상 기정사실화... 가계대출, 11.8조 '이자폭탄' 어찌나

머니S

각국의 경기가 되살아나고 전 세계 곳곳에서 인플레이션 경고음이 울리는 만큼 금리 인상 시계가 빨라지고 있으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한은은 10~11월에 기준금리 0.25%p 인상에 나설 전망이다. 연준의 경우 2023년에는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미래에셋생명,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 보험업계 4번째

뉴스1

미래에셋생명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 보험업계에선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손해보험에 이어 네번째
보험업계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자산관리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삼성생명, 실손 조직 신설... '포기' 보험사들과 대조

데일리안

삼성생명이 실손의료보험과 관련된 조직을 신설. 새로운 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해당 상품의 판매를 포기하고 있는 다른 보험사들과 대조되는 행보
이달 초 실손심사파트를 기존 보험금지급 산하에서 분리. 다만, 실손보험과 관련한 새로운 기획이나 업무가 추가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 중개형 ISA 계좌 42만 · 잔고 3000억 돌파

뉴시스

지난 2월말 업계 최초로 중개형 ISA를 출시한 이후 4개월 만인 6월28일 기준 42만개의 계좌가 개설. 전체 계좌의 절반이 넘는 비중. 잔고는 3000억원을 돌파
중개형 ISA를 개설한 고객의 투자 비중으로는 주식이 74%를 차지했다. 펀드와 추가연계증권(ELS)이 각각 2%, 1.8%로 뒤를 이었다.

"진료 많을수록 보험료 더 많이"... '4세대 실손보험' 내달 1일 첫선

동아일보

기존 실손보험 상품 대비 10~70% 저렴하지만 병원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4세대 실손보험'이 다음 달 1일 출시
금융위는 4세대 실손보험의 평균 보험료가 기존 실손보험 상품 대비 10~70%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

Compliance Notice

본 조서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서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